

# 군산 시민 '디지털 배움터'

### 주민센터·자봉센터 총 8개소... 강사 서포터즈 배치 스마트폰 기초 활용... 모바일 주문·결제·뱅킹 과정

군산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이 지속되면서 스마트폰 예배·결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사용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시는 대야면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총 8개소를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하고, 강사와 서포터즈를 배치해 군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및 디지털 문제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초 교육과 무인주문기 사용법(음식주문, 티켓 구매, 민원서류 발급), 모바일 주문·결제, 모바일 뱅킹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부터 디자인, 사무용 프로그램 활용 등 디지털 심화 교육 과정도 실시한다.

또한 6월부터는 전북광역노인회와 연계하여 한라비발디 경로당 등 3개소에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http://www.디지털배움터.kr>)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장소를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를 모르는 시민은 전화(1800-0096)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주위에 디지털 배움터가 없는 경우 1:1 방문교육이나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경로당 마을회관 등)로 찾아가서 강의하는 이동형 교육도 실시한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학생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슬기로운 취업 실전 캠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슬기로운 취업 실전 캠프'

###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역량강화 위해 개최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슬기로운 취업 실전 캠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캠프는 학생들의 체온을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의무화, 페이스 실드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캠프의 목적은 구직활동을 준비하는 3~4학년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자기소개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의면접을 통해 효과적인 취업전략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캠프 일정은 채용 트렌드를 익히고

직무에 맞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을 배우며, 이를 활용하여 실제 서류를 작성하고 컨설팅까지 받아보고, 모의면접 실습을 통해 취업현장감을 익힐 수 있는 시간 등으로 이어졌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취업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교육을 통해 좀 더 취업에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군산대 정승우 학생처장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이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시, 백신접종완료 배지·인센티브 제공

### 집단면역 형성에 속도... 2차

### 완료 60세 이상 순차적 지급

익산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에게 배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집단면역 형성에 속도를 올린다.

8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60세 이상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배지에는 '다이어يوم 익산에 살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등의 문구와 함께 시를 상징하는 삼벌마크가 새겨져 있다.

시가 정부의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원에 발맞춰 만든 배지다.

모바일 전자결명서업 활용이 어려운 고령의 접종자를 격려, 예우하기 위한 배지다. 증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월 이후 '접종자 야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가 이뤄지면 산책이나 야외활동 시 간접적인 증빙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모바일 전자결명서업에서 전자접종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백신 인센티브 지원 내용과 활용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예방접종 배지 지급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접종 유도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접종 완료 후에서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다수 시민들이 접종을 마칠 때까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은 시민은 6만1129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21.8%,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1만4165명으로 5.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김재훈 기자

## 군산, 발달장애 기능경기... 바리스타 '금상'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이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바리스타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은 고용노동부 주최 전북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의 2021년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부문에 4명의 수강생이 참가해 금상(1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바리스타 기능을 보유

한 200여명의 호남권 선수들이 철저한 방역수칙 속에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이었다.

평생학습관에서 출전한 정다울 수강생이 영예의 금상(1등)을 수상했으며 그 외 3명의 수강생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2021년 전국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금상을 수상한 정다울씨는 "대회에 참가하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 바리스타 전문가가 되어 나만의 카페를 만들고 싶다는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대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 G마트 나운점, 나운1동에 라면 200박스 기탁

군산시 나운동 행정복지센터는 G마트 나운점(대표 기봉우)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200박스(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기봉우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겹게 살아가시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고 싶어서 전달하게 되었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성 나운동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

는 G마트 나운점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마트 나운점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는 착한가게에 동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후원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모인 성금은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역 소식 통

#### 원광대 일자리플러스센터

#### 예술계 직업·진로 강의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예술계 직업 진로 강의'를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예훈 Depack Corporation 브랜드 디렉터 이사 특강으로 이루어졌으며, 디자인 직무 실무자의 디자인 브랜딩 이야기를 통해 현장의 생각과 실무에 필요한 능력, 위기관리 등을 알아보고, 디자인 직무 이해 및 취업 의지 향상을 위해 기획했다.

특강은 전라적인 디자인 설명과 경험 공유, 간단한 브랜딩 과정 설명, 실질적인 브랜드 디자인 종류 설명, 벤치마킹과 영감, 어떤 디자인 업무가 본인과 맞는지 찾는 방법, Q&A 순으로 진행됐으며, Q&A를 통해 실무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면접 팁과 직무능력개발 방법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 익산소방서, 아파트 옥상

#### 비상문·대피로 확보 당부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아파트 화재발생 시 입주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금상태로 방범 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209단지 방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